

#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간의 구직활동 및 정신건강에서의 차이<sup>1</sup>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한영석\* 신강현\*\* 윤하나\* 남궁혜림\* 정지현\*

\*광운대학교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실직의 유형을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두 유형에서 정신건강과 구직활동 관련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실직한 지 2개월 이내의 실직자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 1083명과 자발적 실직자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자발적 실직자의 정신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 관련 변인에서는 구직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명확성과 구직효능감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발적 실직, 비자발적 실직, 정신건강, 구직강도, 구직명확성, 구직효능감

일반적으로 실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Pearlin, 1989). 실직으로 인해 불안과 긴장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DeFrank & Ivancevich, 1986). Kasl과 Cobb (1982)도 실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실업자들은 비실업자들에 비해 기관지염, 심근경색, 그리고 폐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Cook, Cummings, Bartley, & Shoper, 1982). O'Brien과 Kabanoff (1979)의 연구에서도 실직자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증상들(예, 기관지염, 알레르기, 코와 목에서의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실직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는 가정갈등이나 자살과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Jahoda, Lazarsfeld, & Zeisel, 1971).

최근 Murphy와 Athanasou (1999)가 종단적 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하여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4-074-HS0007).

\*\*\* 안상수 박사는 현재 여성개발원에 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탁진국,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E-mail: tak@kw.ac.kr

또한 실적이 되는 경우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변화에 대한 효과 크기는 .36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취업이 되는 경우 정신건강은 좋아지는 것으로(효과크기 .54) 나타났다.

실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같은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 Warr (1987)는 실업자들은 취업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급여의 제공, 가치 있는 지위,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성, 통제감 등과 같은 이점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Johoda (1982) 역시 실업자들은 일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 행복감을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직은 크게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실직과 본인은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비자발적 실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직에 관한 연구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다운사이징, 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에 초점을 두어 왔다 (Hanisch, 1999).

여러 이유 (예, 직무불만족,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 등)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 상태에 있는 자발적 실직자들과 자신은 더 있고 싶으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자발적 실직자들 사이에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에 관한 연구 가운데 두 실직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변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직 연구들은 이들이 실직한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은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떠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Hanisch, 1999). Hanisch (1999)는 향후 실직 연구에서는 실직한 이유를 토대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ller와 Hoppe (1994)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어떻게 실직되었는지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회사로부터 맡은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해고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예, 수행능력)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보다 정신적 고통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이유 때문에 불공정하게 해고당한 것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실직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직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으로 실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신건강 수준과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여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간에 이러한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실직 후 초기 단계에서 회사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클 수 있고, 또한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불안, 신체화,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만 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더 나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Metzger (1997)는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많은 교장들이 의기소침하고 심지어 우울 증세까지 경험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정신건강(불안, 신체화, 우울 및 정신건강 등) 상태가 더 나쁠 것이다.*

또한 실직 후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자발적 실직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신이 염두에 두어 왔던 회사가 있거나 등과 같이 자신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직 후 초기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 실직자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불안이 더 커서 실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Wanberg (1995)는 많은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재정적인 압박이나 낮은 고용 가능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직무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Leana와 Feldman (1992)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국가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취업난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불안이 더 클 것이고 따라서 빨리 직장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구직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도 낮아지는 것이다 (Hanisch, 1993).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들에 대한 면접 조사에서도 (Metzger, 1997) 이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신감 상실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해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실직에 대한 내적 귀인(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자긍심이 더 낮고 이로 인해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구직효능감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2.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구직강도와 구직효능감)에서 비자발적 실직자와 자발적 실직자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구직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구직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집을 실직 후 2개월 이내인 실직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과정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1차 연구로서, 1차 조사에서는 실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향 후 2차(6개월 후) 및 3차(1년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표집을 2개월 이내 실직자로 제한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방법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잡포털서비스사 가운데 하나인 회사에 회원등록을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30만 명의 회원 중에서 조사 당시에 실직한지 2달 이하인 대상만을 설문에 응답하도록 온라인 설문지 상에서 설계하였다. 즉, 설문에 기입하기에 앞서, 실직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실직기간이 2달 이상인 사람은 설문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발송할 것을 약속하였다. 총 177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중 불성실 응답자 130명을 제거하여 총 1640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은 조사대상자에게 실직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해고나 강제퇴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분하였다. 자발적 실직자는 1083명(66%)이었고 비자발적 실직자는 557명이었다.

두 집단은 인구통계적 변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 자발적 실직자는 전체 1083명 가운데 남성이 781명(72.1%)이었으며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 남성은 425명으로서 전체 557명 중 76.3%였다. 연령에서는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평균 34세였으며,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평균 35.6세였다. 결혼여부에서는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54.5%가 기혼자였고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에는 61.4%로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서는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대졸이 770명(71.1%)이었고 비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대졸이 408명(73.2%)으로서 서로 유사했다. 두 집단 간 인구통계적 변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 차이를 검증하는 t검증을 통해 종속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측정도구

### 정신건강

**불안:** 평소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 Gorsush 및 Lushene(1970)의 척도를 한덕웅, 전결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건호(1993)가 번안하여 사용한 20개 문항 가운데 요인계수가 높은 5개 문항(예, 안절부절한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alpha는 .93이었다.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를 한덕웅 등(1993)이 번안한 것 중 요인계수가 높게 나타난 6개 문항(예, 우울한 기분이 든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alpha 계수는 .92였다.

**신체화:** 신체화는 한덕용 등(199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소화 장애, 심혈관계장애, 통증, 그리고 불면증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 장애는 “위가 답답하다”등의 2개 문항, 심혈관계 장애는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등의 2개 문항, 통증은 “뒷골이 당기고 아프다”등의 2개 문항, 그리고 불면증은 “잠을 자기가 힘들다” 등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점수를 합한 전체 총점을 구하여 신체화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요인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고통을 더 많이 겪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되었다. 전체 척도의 alpha는 .94였다.

**정신건강:**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중 신현균과 장재윤(2003)이 사용한 12문항(계속해서 긴장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을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 요인 6문항, 사회부적응 요인 6문항을 포함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쁨을 의미하도록 점수화되었다. alpha 계수는 .84였다.

#### 구직활동관련 변인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은 김명인(2003)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JOB II Survey(Vinokur & Price, 1991)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alpha 계수는 .85였다.

**구직강도:** 구직강도는 Wanberg, Hough 및 Song (2002)이 사용한 10개의 구직강도 문항(예, 취업대행 회사나 기관에 등록하고 자문을 구한다; 구직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다). 구직강도는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alpha 계수는 .78이었다.

## 결과 및 논의

두 실직유형간의 정신건강과 구직관련 활동에서의 차이에 관한 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비자발적 실직자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변인(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건강)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정신건강이 더 나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에서 비자발적 실직자는 구직강도에서는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구직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t = -4.39, p < .01$ ),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구직효능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를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 사이에 정신건강과 구직활동 관련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가정했던대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불안, 우울, 신체화, 그리고 정신건강의 모든 변인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이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해고나 강제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정

신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으로부터 어떻게 실직되었는지에 따라 정신건강이 영향을 받는다는 Miller와 Hoppe (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표 1. 실직 유형에 따른 구직활동과 정신건강에서의 차이검증

	자발적 실직		비자발적 실직		t
	M	SD	M	SD	
구직활동					
구직 강도	3.36	.54	3.49	.56	-4.39**
구직효능감	3.29	.63	3.35	.62	-1.89
정신건강					
불안	3.25	.88	3.49	.90	-5.14**
신체화	2.84	.88	3.00	.95	-3.26**
우울	3.02	.91	3.25	.95	-4.71**
정신건강	2.81	.56	2.89	.56	-2.83**

주. \* p <.05, \*\* p <.01

Hanisch (1999)가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실직 연구에서 실직 유형간 비교를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실직 연구에서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인지적 과정이나 다른 행동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직활동 관련 변인에서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구직강도가 더 높게 나타나 가설 2-1을 지지하였다. 이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의 경우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직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직효능감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설과는 반대로 비자발적 실직자의 구직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과는 달리 비자발적 실직자들의 구직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추론해 볼 때 구직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을 통해 구직효능감이 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를 포함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전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실직 전부터 정신건강 수준이 동일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더 나쁜 상

태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비자발적 실직자의 정신건강 수준이 나빠진 것이 비자발적 실직 자체로 인해서 나타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두 집단 사이에 정신건강 수준과 구직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향후 연구에서는 회사에 대한 분노, 실직에 대한 준비성, 또는 구직필요성 등의 변인을 포함시켜 정신건강이나 구직강도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직 유형을 자발과 비자발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였다. 그러나 논의에서 기술하였듯이 자발적 실직인 경우에도 다른 조직에서 월급을 더 준다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자발적 실직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해고를 당해 그만두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McElroy, Morrow, & Rude, 2001).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실직과 비자발적 실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는지를 구분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를 실직된 지 2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실직된 후 초기 단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의 정신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약화되는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발적 실직자의 정신건강 점수가 비자발적 실직자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현직자와 비교해 정신건강 수준이 어떠한 지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실직자와 현직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잡포털서비스사에 등록된 회원들 가운데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회사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자를 대표하는 표집으로 보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언,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 (2003). 성취프로그램의 효과: 구직효능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 181-204.
-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 장재윤(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한덕웅, 전결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 (1993).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과 개인차 변인. 학생지도연구, 10, 1-35. 성균관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성우, 양채열 (1999).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 논집, 22, 1-29.
- Cook, D. G., Cummings, R. O., Bartley, M. J., & Shoper, A. G. (1982). Health of unemployed middle-aged men in Great Britain. *The Lancet*, 3, 1290-1294.
- DeFrank, R. S., & Ivancevich, J. M. (1986). Job loss: An individual level review and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20.
- Hanisch, K. A. (1999). Job loss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88-120.
- Jo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hoda, M. Lazarsfeld, P. F., & Zeisel, H. (1971). *Marienthal: The sociography of an unemployed community*(M. Jahoda, P.F. Lazarsfeld, H.J. Zeisel, J. Reginall, & T. Elsaesser, Trans.). Chicago, IL: Aldine Atherton.
- Kasl, S. V., & Cobb, S. (1982). The experience of losing a job: Some effects on cardiovascular functioning.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34, 88-109.
- Leana, C. R., & Feldman, D. C. (1992). *Coping with job loss*. New York: Lexington Books.
- McElroy, J. C., Morrow, P. C., & Rude, S. N. (2001). Turnov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voluntary, involuntary, and reduction-in-force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1294-1299.
- Metzger, C. (1997). Involuntary turnover of superintendents. *Thrust for Educational Leadership*, 26, 20-24.
- Miller, M. V., & Hoppe, S. K. (1994). Attributions for job ter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Human Relations*, 47, 307-327.
- Murphy, G. C., &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83-99.
- O'Brien, G. E., & Kabanoff, B. (1979). Comparison of unemployed workers on values, locus of control, and health variables. *Australian Psychologist*, 14, 143-154.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pei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usan, L. E. (1997). Measuring the human cost of a weak economy: Does unemployment lead to alcohol abuse? *Social Science Medicine*, *44*, 251-260.
- Vinokur, A. D., & Caplan, (1987).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job-seeking behavior and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07-1024.
- Vinokur, A. D., & Price, R. (1991). *JOBS II Survey*. ISR: Michigan.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Wanberg, C. R. (1995).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unemployment and quality of reemploy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40-54.
- Wanberg, C. R., Kanfer, R., & Rotundo, M. (1999).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search competencies, and job-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897-910.
- Wanberg, C. R., Hough, L. M., & Song, Z. (2002). Predictive validity of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re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100-1120.
- Warr, P.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Clarendon Press.

# Abstract

##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nd Job-search related Variables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Jinkook Tak\* Tae-yong Yoo\* Tae-young Han\* Sangsoo Ahn\*  
Youngsug Hahn\* Kanghyun Shin\*\* Hana Yoon\* Hye-rim Namgoong\*  
Ji-hyeon Jung\*

\*Kwang Woon University

\*\*Ajou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nd job-search related variables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Among people who had been unemployed for less than 2 months, 1083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and 557 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were surveyed. Results showed that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depression, anxiety, psychosomatic, and KGHQ, supporting hypothesis 1.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ha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job intensit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search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Thus, hypothesis 2 was partially support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ary unemployment, involuntary unemployment, mental health, job-search intensity, job-search self-efficacy